

분양 열기 타고 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광주, 6개월새 계림7구역 등 5~6곳 시공사 선정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공실 아파트 우려 목소리도

광주지역의 뜨거운 아파트 분양 열기를 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들이 잇따라 사업을 확정짓고 있다. 시공사 선정 등 빠른 속도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고 있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공실 증가 및 투기세력 증가 등은 향후 경계해야 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56개 대단위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지구 가운데 최근 6개월 사이 5~6개 지구에서 개발을 맡을 시공사가 선정됐다.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최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풍경제 아파트'로 알려진 재개발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4만9196㎡에 달하는 7구역에는 지상 15~21층 12개동 720여 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2월에는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중견 건설업체인 영무토건이 선정됐다. 영무토건은 4만588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7~25층 13개동으로 공동주택 930가구와 각종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주)EG the 1(라인건설)이 9만2883㎡ 부지에 1571가구를 수용할 지하 2층 지상 22~27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림2지구 재개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또 대인시장과 광주은행, 롯데백화점 등과 인접한 계림8 재개발구역은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나서 2300가구 안팎의 규모로 2019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건립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광주 도심의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서구 쌍촌동 옛 호남대 부지 매입에도 성공,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지역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쌍촌주공아파트는 서진종합건설이 '엘리제' 브랜드로 전용면적 84㎡, 73㎡ 크기의 602가구를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심재생사업이 활발해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한 것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규제 완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같은 대형 행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도를 넘어 개발이 이뤄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공

급이 넘칠 경우 분양은 됐는데 입주자(전월세 등)가 없는 '공실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고, 타지의 투기 세력을 불러들여 광주의 아파트값만 더 높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가점 높은 1순위 청약통장을 대량으로 광주에 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어지다 보면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염려가 있다"며 "청약 조건을 강화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재개발지구는 모두 30개로 동구 14개, 서구 3개, 남구 3곳, 북구 7곳, 광산 3곳 등이다. 재건축지구는 화정주공을 비롯, 서구 5곳, 남구 11곳, 북구 1곳, 광산구 1곳 등 모두 18곳이고 도시환경정비지구는 북구 누문동 등 8곳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9.26 (+12.23)
-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1)
- ▲ 코스닥 668.03 (+1.20)
- ▲ 환율 (USD) 1091.00원 (+2.50)



광주·전남지역 농협 업무 보고회 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광주·전남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시군지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금형설계 소프트웨어 교육

광주·전남 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봉걸)이 정밀금형산업 중소기업체자들에게 금형설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한다.

15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금형제작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품의 경제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세스 검증 및 분석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프레스 금형의 프로세스에 대한 오류 검증 및 분석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smba.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 또는 팩스(062-366-9669)로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062-360-9154).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전서 '전기의 날' 기념식 8일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제50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조환익 한전 사장 등 국내 전기·전력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행사를 치르고 있다. '전기의 날' 기념식은 115년전인 1900년 4월10일 당시의 국내 최초 민간 점등을 기념하는 행사로, 한국전력과 전기산업계 후원으로 1966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대한전기협회 제공>

농어촌공사, 200억 들여 재해 예방 시설 개보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8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1976억원을 투입, 전남지역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이 사업은 지구별로 최소 3년에서 5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에는 영광 불갑저수지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 배수개선사업 40년 이상 노후된 나주호·장성호·담양호·광주호 등 4대호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시설물 정비도 포함됐다.

전남지역 곳곳에 농업용수를 공급 중인 4대호에 대한 정비는 대규모 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영산강지구 유역단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또 노후되거나 파손돼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63개 지구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 10개 지구에는 배수시설 신설 등을 포함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 얼굴

“현장과 소통 강화... 중기 살리기 운힘”

김형락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지역경제 이바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에 임명된 김형락(49) 신임 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계 및 협동조합의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과 지원사업 등을 펼칠 것”이라며 “중소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순천 매산고,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에 중소

기업 중앙회에 입사, 기획조정실 예산부장, 조합진흥부장, 광주전남지역본부 팀장 등을 거쳤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광주전남본부를 이끌어온 강영태 전 본부장은 중기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작년보다 9배 증가

부동산 규제 완화·금리인하 11조6천억 ↑ 가계부채 급증 우려

올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들어 가계 부채가 워낙 가파르게 늘다 보니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418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속보치 성격의 이 집계는 개시된 2008년 이래 3월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치는 2009년 3월의 3조원이었다. 지난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4조2000억원을 나타내 예년 2월 증가분을 훌쩍 뛰어넘는 바 있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매일 이례적인 증가 속도를 나타내면서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최대치인 2009년의 8조1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많은데다 지난해 1분기의 1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

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난 3월까지 총 세 차례 인하한 효과로 분석된다.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주택 매매로 돌아선 것도 요인이 됐다.

마이니스트통장 등 은행권 기타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51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총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3월 말 전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증가한 570조6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작은 증가폭을 보였다. 1분기 기준으로 본 전체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9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증가액(2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50배로 늘었다. /연향뉴스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한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010-2632-779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성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성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성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